

관광지민간개발사업 추진

남원시, 광한루원과 연계 체험형 관광기반시설 구축

남원시가 대표관광도시 남원의 힘찬 도약을 위해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의 연계를 통한 체험형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남원관광지 및 남원랜드 민간개발사업과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주)삼안과 이엘티씨(주) 및 웰리지코리아가 2021년까지 순수 민간자본 316억원을 투입해, 남원관광지 내 춘향테마파크와 함파우소리체험관, 감병중 시립미술관을 연결하는 총연장 2.16km의 관광형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남원항공우주전문대 주변 짚다위에서 출발하는 2개 코스의 쥘와이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에 남원시는 지난해 6월 5일 민간투자 대표사인 (주)삼안컨소시엄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시설계를 완료한데 이어 현재는 관련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 후에는 의회 동

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완료할 예정으로 오는 5월 중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원랜드 민간개발사업은 주)아프아트가 2021년까지 순수 민간자본 55억원을 투입해 남원랜드 부지에 미니꽃동산, 숲속놀이터, 숲체험관, 동물체험관, 어린이 놀이시설, 다목적 캠핑장, 유아용 짚라인, VR체험관 등을 포함하는 총 5개 테마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난해 12월 6일 민간투자 대표사인 아프아트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남원랜드 부지매입을 위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투자사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관련 인허가와 의회 동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완료하는 한편 올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원랜드 민간개발사업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공간이 조성

되는 만큼 육아 맘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남원관광지에 추진되는 민간개발이 완료되면 남원관광의 오랜 숙제 중에 하나였던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간 관광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져 대표 관광도시 남원이 보고 느끼는 체험형 관광지는 물론 체험형 관광지로 변모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원시에서는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 산업관 웰니스존과 호텔의 민간개발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웰니스존은 작년 5월 준공해 운영하고 호텔은 오는 3월초 완공을 위해 마무리공사 중으로, 기존 허브정원에 이어 다양한 관광서비스 확대를 허브밸리의 관광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원시는 지리산 허브밸리를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 소광물과 호텔 등 150억원의 민간투자유치 협약을 진행한바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은 지난 25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군 소속 8개부서와 2곳 유관기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대응 강화 행정력 '집중'

순창군, 군민 이용 시설 일시 운영중지, 공공시설물 소독 등

코로나19 감염병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순창군이 지난 25일 코로나19 대응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순창군 소속 8개 부서와 순창소방서, 순창경찰서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했으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접촉자 발생 시 각 기관 및 부서별 대응능력을 기르고,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이날 확진자와 접촉자 발생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격리가 필요한 대상자중 자가격리가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 등을 위한 격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부서별 임무와 유관기관 협조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순창군은 본부장인 군수를 중심으로 13개 실무반을 구성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격리시설 운영에 대비해 실무반을 구성해 군 소속 8개 부서에 격리자 관리부터 생활지원, 재정지원, 홍보 등의 업무를 부여하며, 언제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 군은 이날 참석한 순창경찰서와 순창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긴급환자 발생에 따른 이송협조와 격리 불응 이탈자에 대한 출동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최일선에서 확진자나 접촉자 등과 접촉우려가 높은 경찰 및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방역물품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해성 순창부군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순창군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확인했으며, 군민 모두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순창군 보건의료원(주간 650-5265, 야간 650-5222)으로 상담해주시길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실내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 장류체험관, 미술관 등 군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일시 운영중지에 들어갔고, 그 외 시설도 운영여부를 검토중이며, 공공시설물에 대해 전면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과수 화상병 예방 '총력'

교육 및 홍보, 현장 지도 강화

임실군이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과수 화상병 방지를 위해 먼저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방제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화상병은 식물의 세균성병으로 주로 사과, 배, 모과 등과 같은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과일, 가지 등에 광범위하게 발병한다.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모양으로 식물 조직이 검게 마르게 되어 화상병으로 불린다.

이 병은 비와 바람, 곤충류, 농기구

에 의해 전파되며 감염되면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치료가 불가능하고, 결국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 발생지역의 상업적 재배는 물론 과실의 수출에도 제한을 받게 돼 우리나라 전체 과수 산업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국가 관리 병해충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화상병으로부터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정도구 등 농기구와 차량, 작업자에대한 소독(70% 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액, 락스 20배 희석액 등)을 철저히 해야한다.

또한 방제구역내에서의 벌과 같은 화분 매개곤충(종자식물에서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잘 붙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곤충) 방사를 중단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특히, 과수원의 전정 작업을 외지인에게 위탁할 경우 병의 확산 위험도가 매우 높은 만큼 농장주가 직접 수행하거나 불가피 한 경우 반드시 예방수칙에 따른 소독절차를 거친 후 실시해야 한다. 군 과수 담당자는 동계화합물이 포함된 화상병 적용 약제를 농촌지도기관에서 설정한 방제 시기(배 : 꽃눈 발아 직전, 사과 : 신토 발아 시)에 반드시 살포해야 약해 없이 화상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군은 관내 사과와 배 전 재배지에 대한 화상병 방제약제를 다음달 중순까지 생산단체와 지역 농업인상담소를 거쳐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지난해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제도) 정착을 위해 관내 농가에 대해 교육 및 홍보에 나섰다.

이 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잔류량 0.01ppm 이하

의 농약잔류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농가는 작목별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고 안전사용기준(희석배수, 살포횟수, 마지막 살포일)을 준수해야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연기(금지), 회수 및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약사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작물보호제 지침서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이지 농약정보서비스', '한국작물보호협회 작물보호제 도우미' 포털 검색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남원시에서는 26일부터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은 7,584호로 농가당 평균 3십6㎡4천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 수치는 전체 농가수 8,038호의 약 94.3%이다.

남원시에 따르면 총 지급면적은 8,972ha로 ha당 지원 기준은 367,160원이며, 이는 목표가격 21만4,000원/80kg 대비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통계청 전국 산지 평균쌀값 18만9,994원/80kg 제외한 차액의 85%인 2만4405원에

서 고정직불금 1만4,925원/80kg을 제외한 가마당(80kg) 지원액은 5,840원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본격 추진되는 공익직불제 추진방향이 경영체정보변경 후 직불금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불금 신청대상 농가는 사전절차로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정보를 변경등록을 해야하며, 공익직불제는 향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청해야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 경유 광주발-대구행

직행버스 운행 중단

코로나19 대구·경북 확진자 확산에 따른 대구와 광주를 오가는 교통편도 일시 중단되며, 코로나19 타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25일부터 순창을 경유하는 광주발-대구행 동광고속 직행버스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광주발 대구행 직행버스를 운영하는 유한회사 동광당양고속의 통보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광주를 출발해 대구를 오가던 오전 7시 55분과 오후 12시 10분 출발 직행버스는 오는 4월 30일까지 운행중단에 들어간다.

또 대구를 출발해 광주를 오가던 오후 2시 20분과 오후 8시 45분 직행버스도 운행이 중단된다. 아울러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운행하던 순창발 광주 오후 8시 5분 버스도 운행이 중단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니터링과 예방활동, 주민 홍보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5월 종료

임실군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법규에서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그 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동소유 토지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어야 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주택토지와 지적법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